

# 장성 포도 옛 명성 되찾는다

장성군이 품질 고급화 전략을 통해 잃어버린 '장성포도'의 옛 명성을 되찾는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51억원을 투입, 고품질 포도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장성군 동화면과 황룡면 일대에서 생산된 포도는 옛부터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으나 품종 갱신과 관리에 소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등 명성이 퇴색하고 있다.

장성군은 법인과 작목반으로 분산돼 있는 포도 농가를 포도 연구회로

## 2014년까지 51억 투입, 명품화 사업 박차 郡, 비가림 재배 확대·월 1회 현장 컨설팅도

조직화해 시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알슈기나 재배기술, 출하교육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기술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당도 향상을 위해 하우스형 비가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월 1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 친환경 인증면적

을 전체 재배면적의 68%에 달하는 32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우스 시설이나 묘목 등에 대한 지원은 군이 60%의 실비를 지원하고 농가는 40%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함께 장성 포도의 명품화를 위해 장성미래농업대학에 포도학과를

개설하는 한편 공동 출하시스템을 도입, 장성군 대표 브랜드인 '365생 브랜드'로 출하할 계획이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138농가가 45.1ha의 면적에서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조재형 과수담당은 "장성 포도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농민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엄격한 유통 및 출하시스템을 구축,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 윤선도 유적지 '역사체험장' 된다

### 해남군 내년까지 100억 투입 유물 전시관·초당 등 복원키로

해남군이 조선시대 대표적 시조 시인인 고산 윤선도(尹善道) 선생의 유적지를 역사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해남군은 오는 2009년까지 윤선도 선생의 본가가 위치한 해남읍 연동마을내 12만5천400㎡ 부지에 100억원 을 투입, 유물 전시관과 초당, 대정, 정자 등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윤선도 유적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우선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1천700㎡ 규모의 유물 전시관을 신축하고, 전통 예절관인 초당과 주변 녹지재배단지과 연계해 대정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유물 전시관에는 한국 최고의 초상화 화로 평가받는 윤두서(정약용의 증손자)의 자화상(국보 제 240호)을 비롯해 해남윤씨 가전고좌합(보물 제

481호), 윤고산 수직관계문서(보물 제 482호) 지정(至正) 14년 노비문서(보물 제 483호) 등 4천3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또 천연기념물 제 241호인 뒷산 비자나무 숲에 원시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문간재와 연자방아, '心'자형 동산 등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군은 특히 단체 관광객들에게 공동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야외학습장을 조성하고, 고산 자료실에 고산 관련 도서는 물론 학위논문 등 각종 자료를 비치, 고산문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고산 유적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유적지의 이미지를 고려한 가로수를 식재하고, 매표소 주차장부터 유적지 입구까지 고산 선생 시비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완도군 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막

완도군 생활체육공원에 참전유공자 기념탑이 세워졌다.

완도군은 지난 24일 김종식군수와 김영록 국회의원, 문병인 광주 지방보훈청장 등 관내의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6·25 및 베트남 참전용사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탑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된 기념탑은 면적 330㎡에 15m 높이의 화강석 주탑을 중심으로 참전용사 청동부조상, 6·25참전 16개국 국기 및 월남전 참전부대 마크 등이 설치됐다.

특히 기념탑 좌우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완도지역 유공자 1천750명과 베트남 참전용사 352명, 무공수훈자 109명 등 총 2천211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기념탑은 LED 조명을 설치, 야간에 체육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는 물론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내년까지 대불산단 주택단지에 LNG 공급

### 영암군-목포도시가스 협약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단지내 공동주택단지에 천연가스(LNG)가 첫 공급된다.

영암군과 목포도시가스는 24일 영암군청 상황실에서 삼호읍내 공동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도시가스는 오는 2009년까지 사업비 31억원을 투입, 대불산단에서 중원아파트까지 6.7km구간의 관로 매설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모두 5천270세대가 공급받게 되며, 매년 세대당 28만여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氣찬 랜드로 떠나는 웰빙여행”

“기(氣)찬 랜드로 웰빙여행을 즐기세요.”

영암군이 월출산 용치골 자락에 '웰빙 관광지'로 조성중인 '기(氣)찬 랜드'가 7월 12일 개장한다.

영암군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월출산의 빼어난 기(氣)와 맥반석 맑은 물을 활용한 용치골을 웰빙 관광지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6만7천㎡의 부지에 국·도비 62억원 등 모두 110여원이 투입된 용치골 관광지는 수원 확보를 위해 1만 8천t을 담수할 수 있는 대형 사방망이 건설되고, 접이식 침목조 진입도로(520m)와 사성교(四星橋), 팔각정, 구름다리 등도 설치된다. 또 주차장, 화장실, 매표, 휴게 정자 13개소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군은 특히 5개의 자연형 풀장과 가야금 동산, 자연석 계단 사업 등을 조성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



오는 7월12일 개장하는 월출산 용치골 '기(氣)찬 랜드'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5개소의 자연형 풀장이 조성돼 있다.

### 영암군 월출산 자락에 내달 12일 개장 자연형 풀장·사성교·산림욕장 등 갖춰

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기(氣)의 공원과 기건강센터, 기웰빙도로를 용치골과 연계하고 12ha의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등 휴식과 피서, 명상과 치료를 겸한 웰빙 관광지로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기(氣)의 고장인 영암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기(氣)건강의 메카로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강진서 '외국인 대학생 가요제'

### '청자문화제' 행사 확정

“노래에 자신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초청합니다” 강진군이 오는 8월 열리는 청자문화제에 맞춰 제 1회 외국인 대학생 노래대항을 연다.

군은 올해 13번째인 청자문화제의 외국인들의 날(8월10일) 행사 중 하나로 대학생 가요제를 열 계획인데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 원 등 푸짐한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외국인대학생 노래대항은 전년비색 고려청자와 강진읍 외국

인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지구촌의 다양한 인종이 참여하는 국제적 축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개최된다. 참가 자격은 국내 2년제 대학 이상 재학(휴학)중이거나 여학 연수 중인 외국인이며 한국가요 및 민요, 자국민속, 악기연주 가운데 선택해 기량을 발휘하면 된다.

강진청자문화제 홈페이지(www.gangjinfes.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humni18@hanmail.net)을 통해 다음달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화순군 “명함도 경쟁력” 농산물 홍보 명함 제작 배부

화순군이 최근 인사발령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6명에게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해 배부했다. <사진>

앞면에는 사진이 실려 있으며 뒷면에는 화순 농산물 대표브랜드 '자연속' 홍보와 함께 농사기술 상담부서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화순군은 앞으로 대외활동이 많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화순군 10대 농·특·축산물 사진을 포함시켜 명함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FTA 파고 넘치” 곡성 농업발전 합동교육

곡성 농업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교육이 공무원과 농업관련 단체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공동 주최로 지난 24일 곡성농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지자체와 농업관련 단체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 이원호 농협지부장은 “민관 합동교육은 농업·농촌·농협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역농업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한미 FTA 등



농업부문의 어려운 난관을 민관이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

보람상조는... (text about benefits and services)

문의: 010-9556-8114

자연 사랑!! 살고싶다!!

오랜 기다림의 행복!!

‘달향수복’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시행: (주) 달향수복  
시공: (주) 자연재개발

www.naturestate.com  
☎061-291-4000 ☎061-383-2346